

힘든 시련을 겪고있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도움이 된다. 또한 아기를 잃은 부모들은 (02) 9906 7004의 SANDS에 전화해 볼 수 있다. SANDS는 아기가 사망했거나 유산된 부모들을 지원해 주는 그룹이다. 전화할 때 통역이 필요하면 131450의 번역통역서비스에 먼저 전화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보건센터에서도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다.

Korean  
3 August 1998

위의 전화번호들은 출판 당시에 정확한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전 화번호부에서 번호를 확인해 봐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아기가 사망할 경우

When a baby dies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http://mhcs.health.nsw.gov.au>  
e-mail: [mhcs@doh.health.nsw.gov.au](mailto:mhcs@doh.health.nsw.gov.au)  
phone: (02) 9382 8111

REVIEWED  
April 2001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NSW HEALTH  
DEPARTMENT

## 아기가 사망할 경우

### When a baby dies

출산되는 아기들 전체에서, 대략 백에 하나 정도가 사산이 아니면 출생 직후 사망한다. 이런 경우의 아기 부모들은 낯을 잃게 마련이고, 흔히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먼저 갖게 된다. 간혹 분만시의 어떤 결함이나 진통시의 합병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아기가 사망할 경우, 아기를 만나보고 껴안아 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리고 보통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줄 수 있으며,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의 자국을 찍은 것과 아기의 머리카락 한 줌을 집에 가져가게 해 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아기를 만나보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아기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되고 아기와 송별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했다고 말한다.

"우리 아기와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기쁩니다." 이것은 출산 직후 아기를 잃은 한 엄마가 한 말이다. "아기를 조금 알게 되고, 아기가 마치 나의 삶의 일부인양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들의 종교의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당 종교 고역자와 상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의 바이링퀼 조산사나 다문화 보건직원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아기의 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NSW 주의 병원들은 최선을 다해 아기의 부모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아기를 잃은 산모는 보통 독실에서 산후간호를 받게 되며, 젖이 돌면 의사나 간호사나 조산사가 젖을 말리는 법을 알려 준다. 산모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아무 때나 병문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가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하는 병원도 있다.

아기가 임신 20주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유산으로 취급되므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장례식을 거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자신들의 종교 고역자에 의해 축성받기를 원한다면 의사나 조산사나 소셜워커에게 말해 두어야 한다. 반면에 아기가 임신 20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는 사산으로 취급되므로, NSW 주에서는, 아기의 장례식을 거행해야 하며, 출생신고도 해야 한다 - 이런 것들은 병원의 소셜워커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관습상의 이유나 종교상의 이유로 아기의 장례식에 부모가 참석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구태여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관습상 중요한 특별 절차를 밟고 싶으면 소셜워커에게 얘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사를 불러줄 수 있다).

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조산사가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아기의 부모들이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가서 소셜워커를 만나볼 수 있다.

출생 전이나 출생 직후에 잃은 아기에 대한 슬픔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가족을 잃은 슬픔만큼 각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산의 경우는 물론, 유산의 경우라도, 아기의 부모가 이때 깊은 슬픔에 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감정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슬픔의 감정은 개인마다 다른 것이어서, 남녀 성별에 따라 슬픔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때로는 아기를 잃은 슬픔이 그 즉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나타나기도 한다.

주위에 아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주저말고 아기를 잃은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 보고 아기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름이 이미 지어진 경우)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제를 피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런 행위는 아기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같이 만들므로 아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보다 한결 낫다. 간혹 '아기는 언제든지 또 낳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쩌면 잘 되려고 그렇게 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등의 말을 해 주면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도 역시 상처를 준다. 그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아기의 부모가 슬픔을 토로할 때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